

초등학생의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부모의 학력과 직업포부의 관계*

박 열 매[†]

인천하정초등학교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직업포부를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 이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초등학생의 개인적 특성 변인 중에서도 인지적 측면인 학업성취와 정의적 측면인 자아존중감, 환경적 측면인 부모의 학력을 변인으로 정하여 직업포부 수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 결과 성별에 따른 직업포부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는 직업포부 수준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과 직업포부 수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을 예측변인으로 했을 때 4학년의 경우에는 직업포부 수준의 9%, 6학년은 12%를 설명하였고, 부모의 학력에 따른 초등학생의 직업포부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초등학생 4, 6학년이 직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즉 자신의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직업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초등학생, 직업포부,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부모의 학력

* 이 논문은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함.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열매, 인천하정초등학교 교사, (403-132)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393 (하정4길 73), Tel : 032-429-3866, E-mail : neohides@empal.com

서론

해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기소개나 기본 신상에 대하여 조사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장래희망 직업이다. 학생들의 장래희망 직업은 학업 및 인성지도, 진로지도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 학생의 진로의식 수준, 성격, 관심, 지향하는 가치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기도 한다. Gottfredson(1981)은 개인이 특정 시점에서 선택한 장래희망 직업을 직업포부라고 하였고, 이것은 흥미나 적성과 같이 미래의 직업선택을 예언해주는 주요 개념 중의 하나이다. 직업포부는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는데, 특히 초등학생의 직업포부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유지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동 스스로가 직업포부를 선택하고 결정해가는 과정은 아동의 진로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임은경, 2000),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초등학생의 직업포부 발달은 진로목표를 분명하게 해주고, 학습경험을 의미 있게 해 준다(Wang & Staver, 2001).

Gottfredson(1981)의 직업포부 발달이론에 따르면 아동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와 같은 내적 특성보다는 성역할에 따른 직업의 구분(6-8세)이나 직업의 사회적 지위(9-13세)에 따라 직업포부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중심으로 직업포부를 형성하고, 자신의 특성을 통합하여 미래 직업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중학교 이후에 원하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는 떨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상대적으로 Super의 진로발달이론(Super, Savickas, & Super, 1996)에 따

르면 아동기 초기에는 환상에 초점을 두고 직업을 선택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중시하여 비교적 현실적인 진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공윤정, 2008).

학생들의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탐색한 선행 연구들(O'Brien & Fassinger, 1993; Rainey & Borders, 1997)에서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및 교육수준, 지능, 성역할 태도, 학업 성적, 학교 소재지, 자아개념, 유의미한 타인 등 많은 변인들이 개인의 직업포부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직업포부와 관련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은 성역할 정체감(송은자, 2004; 이정임 2008), 부모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양난미, 이은경, 2008), 중요한 타인 및 매체, 학교활동(전선미, 2009) 등을 변인으로 삼았다. 아직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포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고, 직업포부의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한 상태이다. 초등학생의 직업포부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은 학생들의 직업포부 발달 및 진로교육, 진로상담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본다. 또, 외국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변인이 직업포부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교육적 성취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개인적 특성 변인 중에서도 인지적 측면인 학업성취와 정의적 측면인 자아존중감, 환경적 측면인 부모의 학력을 변인으로 하여 직업포

부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학업성취는 개인의 내적 특성 요인 중에서도 능력에 관련한 변인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한다. Sewell, Haller와 Portes(1969), Sewell, Haller와 Ohlendorf(1970)의 연구에 의하면 학업성취는 학생의 직업포부 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정지혜, 2006, p.17에서 재인용), Schoon과 Parsons(2002)도 개인의 교육적 성취가 직업포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공윤정, 2008, p.225에서 재인용). 학업성취와 직업포부의 관계를 알아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주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직업포부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초등학생들로 정하였을 때 학업성취와 직업포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초등학교 중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학업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 신체/운동 유능감, 외모 유능감으로 구분되고 이들이 모여 일반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Berk, 2006). 일반적인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아동의 적응방식이나 행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어떤 직업적 역할들이 자신에게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Super, 1957; Korman, 1966, 1967). 이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인 자아존중감이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직업자아개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자아존중감과 직업포부와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부모관련 변인은 학생의 직업포부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로 교육열이 높고, 전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직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학력 및 직업지위에 대한 기대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배경으로 성장하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직업포부 수준이 부모의 학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써 부모의 학력을 변인으로 정하여 학생의 직업포부 수준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시기는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통하여 직업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년에서 고학년까지의 시기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때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4, 6학년을 대상으로 학년별, 성별 직업포부를 알아보고, 학업성취 및 자아존중감, 부모의 학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초등학생의 학년과 성별에 따라 직업포부 수준과 종류는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는 직업포부 수준과 관련되는가?

셋째,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직업포부 수준과 관련되는가?

넷째, 초등학생의 부모의 학력은 직업포부 수준과 관련되는가?

연구의 방법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인천에 소재한 1개 초등학교 4학년 116명과 6학년 126명, 총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초등학교 중학년에서 고학년까지의 시기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중학년으로는 4학년을, 고학년으로는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4학년과 6학년은 발달단계가 서로 다르므로 학년별로 변인에 따른 관계를 알아보고 비교해 보았다.

검사 도구

가. 학업성취도 검사

이 연구에서 사용한 학업성취도 검사는 학생들의 2009학년도 2학기말 학업성취도 평가(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평균 점수이다.

나. 자아존중감 검사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일반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형식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고, 2, 4, 5, 10번 문항은 역채점해야 한다. 이 검사는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총점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각 문항 간의 내적 일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ronbach's $\alpha = .88$).

다. 직업포부 질문지

이 연구에서는 유정이, 김지현, 황매향(2002)이 초등학생의 직업희망 및 인식의 발달에 관

한 연구에서 사용했던 71개의 직업 리스트를 기초로 하여 이아라(2006)가 8개의 직업들을 더 첨가해서 제시한 총 79개의 직업목록의 질문지를 사용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직업 목록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3개씩 선택하도록 하고, 원하는 직업이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빈 칸에 직업 이름을 직접 적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직업포부 수준은 선택한 3개 직업들의 직업지위 점수의 평균을 나타내는데, 평균값이 높을수록 직업포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직업지위 점수가 없는 직업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지위 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학생들에게 3개 직업들을 선택하게 하고 이 직업지위 점수들의 평균값을 사용한 이유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업포부의 범위를 좀 더 안정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각 직업들의 직업지위 점수는 유홍준, 김월화(2004)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정리했다. 유홍준, 김월화(2004)는 교육이 직업지위를 획득하는데 중요한 원인이고 수입은 그에 따른 결과이므로 '교육'과 '수입'은 직업지위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변수라고 하였다. 유홍준, 김월화(2004)는 직업지위 점수를 도출하기 위해 2003년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ccupational Employee Statistics Survey: OES)자료를 이용하여 각 직업의 월수입은 중간값으로, 교육년수는 평균값으로 계산하였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Y(\text{직업지위}) = 31.6165 + 0.0105X_1 \text{ (월수입 중간값)} + 2.5412X_2 \text{ (교육년수 중간값)}$$

$$F = 21.599 (.000) \quad R^2 = .718$$

표준화계수를 이용한 회귀식: $Y = .118X_1$ (월수
입중간값) $+ .750X_2$ (교육년수 중간값)

유홍준, 김월화(2004)의 연구결과에서 직업 지위 점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직업이나 직업 소분류의 범위로 정리하기 어려운 직업은 제외하고 직업지위 점수를 제시하였다. 직업지위 점수는 연구자가 ‘통계청-통계분류 홈페이지-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각 직업들의 분류된 내용에 맞게 정리하였다.

라. 부모 학력 질문지

이 연구에서는 신화용(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학력 질문지를 참고로 해서 연구 대상 학생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을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

각 영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 직업포부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정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 직업포부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이 직업포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년과 성별에 따른 직업포부 수준과 종류

가.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 직업포부 수준의 기술통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성취도는 100점 만점 중 평균 79.69점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 중 평균 3.44점, 직업포부 수준은 71.17점으로 나타났다.

나. 직업포부의 종류 및 빈도수

4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선택한 직업포부의 종류와 빈도수를 성별로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 2의 4학년 직업포부의 종류를 분석해보면 남, 여학생 모두 연예인, 요리사, 화가, 캐릭터디자이너의 직업을 공통적으로 선호하였다. 특히 4학년 남학생은 여학생과 비교하여 운동선수, 경찰관, 소방관, 형사, 프로그래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학년 여학생은 남학생과 비교하여 초등학교교사, 패션디자이너, 유치원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학년 직업포부의 종류를 분석해보니 남, 여학생은 모두 연예인, 요리사는 공통적으로 선호하였으나 그 외에는 남, 여학생이 선

표 1.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 직업포부 수준의 기술통계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학업성취도	240	17	100	79.69	15.98
자아존중감	242	1	5	3.44	.68
직업포부 수준	241	54	83	71.17	3.80

표 2. 학년별, 성별 직업포부의 종류와 빈도수

학 년	성 별	순 위	직업의 종류	빈도 수	직업지위 점수	학 년	성 별	순 위	직업의 종류	빈도 수	직업지위 점수
4	남	1	운동선수	20	69.3	6	남	1	프로게이머	27	66.8
		2	연예인	17	72.4			2	운동선수	17	69.3
		3	경찰관	13	69.2			3	요리사	14	60.2
		3	소방관	13	68.3			4	회사원	13	
		5	형사	12	69.2			5	형사	12	69.2
	5	요리사	12	60.2	5		연예인	12	72.4		
	7	프로게이머	10	66.8	7		경찰관	10	69.2		
	8	캐릭터디자이너	7	68.6	8		캐릭터디자이너	6	68.6		
	9	화가	6	71.4	8		프로그래머	6	76.1		
	10	의학자	5	81.6	8		변호사	6	80.7		
4	여	1	연예인	25	72.4	6	여	1	연예인	19	72.4
		2	초등학교교사	17	74.6			2	초등학교교사	15	74.6
		3	요리사	16	60.2			3	유치원교사	13	69.9
		4	패션디자이너	13	71.4			3	패션디자이너	13	71.4
		5	의학자	12	81.6			5	요리사	11	60.2
	6	유치원교사	11	69.9	6		캐릭터디자이너	10	68.6		
	7	화가	8	71.4	7		의학자	9	81.6		
	8	캐릭터디자이너	7	68.6	8		인테리어디자이너	8	70.4		
	9	유전공학자	4	81.0	9		중고등학교교사	6	76.0		
	10	뉴스앵커	3	73.2	9		소설가	6	72.5		

호하는 직업포부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6학년 남학생은 컴퓨터와 관련된 프로게이머나 프로그래머, 컴퓨터조립원과 같은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학년 여학생은 디자인과 관련된 패션, 캐릭터, 인테리어디자이너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의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학년별, 성별 직업포부 수준의 차이

학년별, 성별 직업포부 수준의 차이를 나타낸 표가 표 3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별 직업포부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4학년이 71.21점, 6학년이 71.13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r=.16, p>.05$). 또, 성별 직업포부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70.53점, 여학생이 71.82점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

표 3. 학년별, 성별 직업포부 수준의 차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학년	4학년	115	71.21	3.52	.16	.87
	6학년	126	71.13	4.05		
성별	남	123	70.53	3.99	-2.67**	.01
	여	118	71.82	3.48		

포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지위수준이 더 높은 직업을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67, p<.01$).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 직업포부의 관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학년의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 직업포부 수준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와 직업포부 수준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r=.29, p<.01$). 그리고 6학년의 학업성취도와 직업포부 수준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r=.35, p<.01$). 즉 4, 6학년 모두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직업포부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4학년의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의 직업포부 수준에 대한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9%를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21,$

$p<.01$). 또한 학업성취도($B=.30, p<.01$)는 직업포부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학년의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의 직업포부 수준에 대한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12%를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8.48, p<.001$). 또한 학업성취도($B=.35, p<.001$)는 직업포부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 6학년 모두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직업포부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직업포부 수준

부모의 학력에 따른 직업포부 수준은 설문 에 응답한 학생들의 자료를 대상으로만 분석 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 학력에 따른 직업포부 수준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 졸업자가 72.07점, 대학 졸업자가 70.99점, 대학원 졸업자가 71.83점으로 나타났고,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표 4. 4, 6학년의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의 직업포부 수준의 상관관계

	4학년			6학년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	직업포부 수준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	직업포부 수준
학업성취도	1			1		
자아존중감	.18	1		.17	1	
직업포부 수준	.29(**)	-.00	1	.35(**)	.06	1

표 5. 4, 6학년의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의 직업포부 수준에 대한 설명력

학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R ²
		B	표준오차	베타					
4학년	(상수)	65.74	2.40		27.45	.00			
	학업성취도	.08	.02	.30	3.23**	.00	5.21**	.01	.09
	자아존중감	-.30	.47	-.06	-.64	.52			
6학년	(상수)	64.67	2.18		29.63	.00			
	학업성취도	.08	.02	.35	4.05***	.00	8.48***	.00	.12
	자아존중감	.03	.53	.00	.05	.96			

표 6. 부모의 학력에 따른 직업포부 수준

부모	학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아버지	고졸 이하	78	72.07	3.52	1.11	.33
	대학(전문대)졸	37	70.99	3.78		
	대학원 졸	11	71.83	3.98		
	합계	126	71.74	3.64		
어머니	고졸 이하	92	71.22	3.52	.31	.73
	대학(전문대)졸	27	71.76	4.14		
	대학원 졸	9	70.84	3.51		
	합계	128	71.31	3.63		

1.11, $p > .05$). 또, 어머니 학력에 따른 직업포부 수준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 졸업자가 71.22점, 대학(전문대) 졸업자가 71.76점, 대학원 졸업자가 70.84점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 .31, p > .05$).

논 의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한 연구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학업성취도는 100점 만점 중 평균 79.69점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 중 평균 3.44점이었으며, 직업포부 수준은 71.17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4, 6학년 학생들 모두 성유형화의 영향을 받아 남학생은 운동선수나 경찰관, 형사, 소방관 등 Holland(1973)의 직업적 성격 유형 중 실재형(Realistic), 기업형(Enterprising)을 선택한 학생이 많았고, 여학생은 연예인, 패션디자이너, 캐릭터디자이너, 화가, 인테리어디자이너와 같은 예술형(Artistic)과 초등학교 교사, 유

지원교사, 중고등학교 교사와 같은 사회형(Social)을 선택한 학생이 많았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성유형화된 직업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어 개인의 직업포부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직업포부 설정에 있어서 성역할의 제한을 크게 받고 있으므로 양성 평등한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성별을 고려한 초등학교 진로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 4학년과 6학년 모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프로그래머와 같은 환상 직업을 모두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이러한 직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특히 남학생들은 프로그래머를 다수 선택했는데, 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컴퓨터 게임 활동에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경우 직업포부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고, 특히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자칫 잘못하면 왜곡된 직업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형성하고 직업포부 발달에 도움이 되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성별에 따른 직업포부 수준의 차이는 여학생이 71.82점, 남학생이 70.53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포부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은 직업포부 형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유정미, 김지현, 황매향(2002), 임은경(2000)의 연구 결과와는 같지만, 공윤정(2008), 이정임(2008)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포부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성숙이나 발달 수준이 높고 타인에 대한 평가나 시선에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의학과 같은 직업지위 점수가 높은 직업을 선택한 빈도가 높았으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지위 수준을 좀 더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넷째, 학년에 따라서는 4학년이 6학년보다 직업포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아동의 직업포부의 발달에 대한 중단연구를 한 미국의 Helwig(200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직업포부의 사회적 지위 수준이 점점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비교, 확인할 수 없었다. 4학년과 6학년의 직업포부 수준의 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초등학교 중, 고학년 시기에 그 차이가 드러날 정도로 직업포부의 발달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년별 특성과 수준에 맞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며,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교육 및 상담은 아동의 진로발달과 직업포부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학년별 직업포부 수준과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는 다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4학년과 6학년의 직업포부 수준과 학업성취,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니, 직업포부 수준과 학업성취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직업포부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직업포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은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 6학년 모두 학업성취는 직업포부와 정적인 상관관계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다시 말해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직업지위가 높은 직업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인지적 측면의 능력을 고려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Gottfredson(1981)은 초등학교 시기에는 자신의 특성보다 성역할이나 직업의 사회적 지위 등 직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직업포부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임은경(2000)은 초등학생의 직업포부가 주로 직업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형성되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흥미와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학생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초등학교 중학년에서 고학년의 시기가 되면 직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즉 자신의 능력도 함께 고려해서 직업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4학년의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의 직업포부 수준에 대한 설명력은 총분산의 9%였으며, 6학년의 설명력은 총분산의 12%였다. 즉 6학년의 학업성취도와 자아존중감의 직업포부 수준에 대한 설명력이 4학년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6학년이 4학년에 비하여 직업포부를 결정할 때 학업성취도와 자아존중감을 좀 더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인적 특성을 점차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직업포부 수준이, 아버지 학력이 고졸 이하 졸업자가 72.07점, 대학 졸업자가 70.99점, 대학원 졸업자가 71.83점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에 따른 직업포부 수준은 고졸 이하 졸업자가 71.22점, 대학(전문대) 졸업자가 71.76점, 대학원 졸

업자가 70.84점으로 나타났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즉 자신의 직업포부를 결정할 때 성역할개념이나 사회적 가치, 명성 등의 사회적 요인은 고려하지만 부모의 학력과 같은 가정 환경적 변인은 초등학생의 직업포부 형성과 관련이 없었다. 이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진로 발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Whiston과 Keller(2004)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즉,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은 학생의 직업포부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 결과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열을 비롯하여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부모의 학력과 같은 가정 환경적 배경은 학생의 직업포부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Nelson(1963)은 아동이 11세 정도 되면 직업의 교육 정도나 수입 등의 직업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직업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생긴다고 하였다. 또, Walls(2000)는 6학년 정도가 되면 직업이 요구하는 교육 수준을 알게 되고, 이 같은 직업 정보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시기에 많이 늘어난다고 하였다. 이처럼 초등학교 중학년에서 고학년 시기는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지식과 진로 선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중요한 때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중, 고학년 시기부터 실질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진로상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직업포부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

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중,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함께 연구하여 다양한 변인에 따른 직업포부를 비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직업포부의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가정은 인천에서 다소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곳에 위치해 있고, 이는 학생들의 성적이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해보고 비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4학년에 비하여 6학년의 학업성취도와 자아존중감이 직업포부 수준에 미치는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설을 설정한 후속연구도 기대해 본다. 넷째, 이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직업포부 수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직업적 자아개념을 알아볼 수 있는 문항이나 척도를 개발하여 직업포부와 그 관계를 알아보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다섯째, 최근에는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을 묻는 설문이 지극히 개인정보로 분류되고, 초등학생은 부모의 최종학력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에 응답한 사례수가 적었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아 회귀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처리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거나 다른 가정 환경적 변인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종구 (1986). 자아개념, 진로의식성숙 및 학업성취도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윤정 (2008). 부모의 지지, 아동의 내외통제성과 아동의 진로 발달의 관계. 초등교육연구, 21(3), 223-242.
- 박은혜 (2006). 학업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 비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은자 (2004). 초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직업적 포부의 발달적 변화.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화용 (2001). 부모의 학력과 직업이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난미, 이은경 (2008). 초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부모 학습 관여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20(2), 455-472.
- 엄창원 (1996). 초·중등학생의 준거집단에 따른 직업적 포부수준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정이, 김지현, 황매향 (2002). 초등학생 직업포부 및 인식의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진로교육학회지, 15(2), 1-17.
- 유홍준, 김월화 (2004). 직업위세 조사방법 비교와 직업지위 변화에 대한 연구. 제3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이아라 (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의 진로장벽, 학업 효능감 및 진로포부의 관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진로포부에

- 영향을 주는 변인. 부산교육학연구, 13(2), 101-123.
- 이정임 (2008).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직업포부와의 관계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범 (2005). 초등학생의 직업흥미와 직업포부 및 진로발달간의 관계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3), 135-152.
- 임은경 (2000). 학령기 아동의 직업적 포부의 발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선미 (2009). 농촌지역 초등학생의 직업포부형성과 관련 변인-경기도 평택 소재 분교 초등학생 중심으로-. 청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혜 (2006). 빈곤가정 청소년의 직업포부 결정요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deian, A. G. (1977). The roles of self-esteem and n-achievement in aspiring to prestigious voc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 109-119.
- Berk, L. E. (2006). *Child development*(7th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 Blau, P. M., & Duncan, O. D.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80.
- Helwig, A. A. (2004). A ten-year longitudinal study of the career development of students: Summary finding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82, 49-57.
- Holland, J. L. (1973).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careers*. Englewood Cliff, N. J.: Prentice-Hall.
- Kishor, N. (1981).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in career decision making of adolescent in Fiji.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 227-232.
- Korman, A. K. (1966). Self-esteem variable in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0, 479-486.
- Korman, A. K. (1967).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perceived abilities and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1(1), 65-67.
- Nelson, R. C. (1963). Knowledge and interests concerning sixteen occupations among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3, 741-754.
- O'Brien, K. M., & Fassinger, R. E. (1993). A casual mode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456-459.
- Rainey, L. M., & Borders, L. D. (1997). Influential Factors in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Aspiration of Early Adolescent Gir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160-17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oon, I., & Parsons, S. (2002). Teenage aspiration for future careers and occupational outcom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 262-288.
- Sewell, W. H., Haller, A. O., & Ohlendorf, G. W. (1970).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 statue attainment process: Replication and revi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1014-1027.

- Sewell, W. H., Haller, A. O., & Portes, A. (1969).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 82-92.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 Super, D. E., Savickas, M., & Super, C. M. (1996). The life span, life space approach to careers.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121-178).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Walls, R. T. (2000). Vocational cognition: Accuracy of 3rd-, 5th-, 9th-, and 12th-grad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56, 137-144.
- Wang, J., & Staver, J. R. (2001). Examining relationships between factors of science education and student career aspira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4(5), 312-319.
- Whiston, S. C., & Keller, B. K. (2004). The influences of family of origin on career development: A review and analysi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 493-568.
- ◆ 원 고 접 수 일: 2010년 12월 07일
◆ 수정원고접수일: 2011년 01월 10일
◆ 게재 승인 일: 2011년 01월 15일

Relationship of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Parental Educational Level and Occupational Aspira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Youl-mae Park

Incheon Hajung Element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variables affecting the occupational aspir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relationship of the variables in a bid to acquire empirical information on influential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occupational aspiration. Out of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school children,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and parental educational level that respectively belonged to the cognitive, affective and environmental domains were selected as the variables that might affect occupational aspiration. And the relationship of the variables to the level of occupational aspiration was selected as a research question of the study.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in relation to the level of occupational aspiration by gender, the girls were ahead of the boy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gaps in that aspect according to grade.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d a positive correlation to the level of their occupational aspiration, 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the level of occupational aspiration. When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were selected as predictors, the two variables made a 8.5% prediction of the occupational aspiration of the fourth graders, and made a 12.3% prediction of the occupational aspiration of the sixth grader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occupational aspiration according to parental educational level. The fourth and sixth graders were found to have an occupational aspiration in consideration of not only the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s but their own academic achievement, namely their abilities.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students, occupational aspiration,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parental educational level.